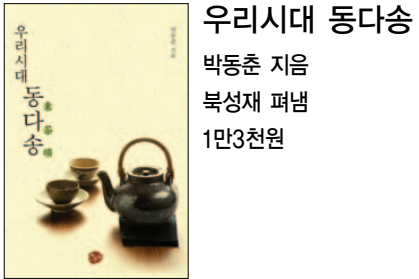


지금 우리에게 차란 무엇인가...또 하나의 <동다송>



우리시대 동다송
박동준 지음
북성재 펴냄
1만3천원

“근자에 북산도인(변지화의 호·변지화는 당시 진도 부사로 홍현주의 뜻을 초의 스님에게 전했다.)이 다도(茶道)에 대해 여쭙자니 고인(古人)이 전한 뜻에 의거하여 <동다송> 일편을 지어 올립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던 유학자 홍현주(1793~1865)는 초의 스님(1786~1866)에게 ‘다도’를 물었다. 그리고 초의 스님은 <동다송>을 지었다. 당시 백성들은 부패와 수탈, 재난으로 인하여 신의와 예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들은 예문(禮論)에 전념하여 논쟁을 일삼는 현실을 통탄하며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제 학문, 즉 이우후생을 주창했다. 자신을 성찰하는 한편, 우리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다. 차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 차의 고유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것도 그 영향이었다. 초의 스님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를 통해 이미 실학을 이해했으며, 유학자들 사이에서 전다박사(煎茶博士)로 알려져 있었다. 홍현주가 그에게 다도를 물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동다송>은 <동다송>의 원 제목이다. 그 후 <동다송>은 우리나라 차문화를 알려준 대표적인 다서로



초의 스님이 39세(1824)때 지은 일지암. 스님은 이곳에서 <동다송>을 지었다.

전해진다. 그리고 2013년 10월, 또 한 권의 <동다송>이 지어졌다. 박동준의 <우리시대 동다송>이다. 초의 스님의 <동다송>이 홍현주의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면 박동준의 <우리시대 동다송>은 시대의 물음에 대한 답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과연 차란 무엇인가. 초의 스님의 다법과 차향을 이어가는 박동준 박사가 <동다송> 위에 쓴 <동다송>이다.

역사는 흘러간다. 그리고 풍습도 변해간다. 그 땅에 사는 사람도 바뀌어 간다. 우리는 어떻게 온고(溫故)할 수 있는가. 증거다. 증거는 역사 속에 소중히 남아 있는 문헌들이다. 이것들은 증명할 수 있는 자취를 담고 있기에 소중한 다. <동다송>이 소중한 유

차를 통해 이룬 초의의 세계 현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책 차를 매개로 한 깊은 사색 담아내

산인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초의 스님이 52세(1837년)때 저술한 <동다송>은 차의 기원과 차나무의 생김새, 차의 효능과 제다법, 우리나라 차의 우월성 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차를 칭송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선인의 자취를 따라 원리에 다다르려 했던 초의선사의 차를 통한 수행의 발자취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한 방

편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차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밝힐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차문화를 복원할 수 있었다.

<우리시대 동다송>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 초의 스님이 구현하려 했던 시대정신과 차를 통해 이루어낸 철학적 세계를 어떻게 현대인들의 정신에 불어넣을까 고민한 것이다. 또한 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를 살다간 조선 최고의 학자와 사상가들의 우정을 소개하고 있다. 초의 스님과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라는 거목과도 같은 우리의 스승들이 초의 스님의 차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낸 역사의 시간을 소개한다. 차를 매개로 한 저자의 깊은 사색의 시간이 온전히 담겨 있다.

“현재 차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의 일종이 되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차가 광범위하게 생산되었던 적은 없었다. 명실 공히 차문화의 대중화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대중화의 성공은 현대인의 차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중략> 옛 사람이 차에서 발견한 진실한 가치 또한 이것이었다. 차는 물질이지만 가장 고상하고 맑고 투명한 것으로서 정신적인 음료로 승화된 이유 또한 차의 담박성에 있는 것이다. 차가 근자와 같다는 것도 담박한 차의 본성을 지칭한 것이다.”

<우리시대 동다송>은 초의 스님과 달아 있다. 선(禪)을 추구하는 맑고 속기 없는 차향을 느낄 수 있는 차이야기는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백을 제공한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종교와 철학 갈무리한 역작

장소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

니시다 기따로 지음 | 김승철 역해 | 2만원



“국가는 도덕의 근원이지만 종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는 절대자의 자기 형성의 방식이며, 우리들의 도덕적 행위는 국가적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국가는 우리들의 심령상의 구제자가 아니다. 참된 국가는 그 근저에 있어서 스스로 종교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참된 종교적 회심의 사람은 그 실천에 있어서 역사적 형성으로서 스스로 국민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의 종교와 철학을 일본적이고 동양적으로 해석해 독창적인 종교철학을 구축하고, ‘교포학파’가 형성되게 한 일본의 세계적인 철학자 니시다 기따로(1834~1945)의 종교관을 만나본다. 종교와 철학을 갈무리한, 지성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만년의 저작 <장소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이 완역되어 출간됐다. ‘난산종교문화연구소연구총서’ 제1권이다.

니시다 기따로는 고급에 탁월한 대가의 책을 종횡으로 정독하되 한 가지를 끝까지 생각하기 전에는 다른 책을 집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니시다의 이 논문 또한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난산종교문화연구소연구총서’ 제1권인 <장소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은 니시다 기따로의 ‘정치적 논리와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글을 수록하고 뒤에 니시다의 이 논문에 대한 해설논문 4편을 함께 넣었다.

박재원 기자

‘억불’ 시대서 유·불 회통 시킨 선지식

허응당 보우

박영기 지음 | 한길사 펴냄 | 1만5천원



‘송유억불(崇儒抑佛)’, 조선은 1000년 동안 계승해온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섬기기로 했다. 책은 불교가 억압받던 시절에 불교 중흥에 앞장서며 이후 한국 불교의 명맥을 이은 조선 중기의 허응당 보우대사(1510~1565)의 생애와 사상이다.

조선 시대에 불교는 국가의 말살 정책에 의해 사찰과 종파가 강제로 통제되고, 혹독한 탄압과 지속적인 배척으로 인해 크나큰 타격을 받았다. 명종대의 고승인 보우대사는 그러한 시대에 불교 중흥에 앞장서고, 이후 한국 불교의 명맥을 잇게 한 인물이다. 특히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의 명을 받아 봉은사 주지로 있던 8년 동안 보우대사는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교단을 정비했으며, 승려 과거제도를 부활하는 등 일련의 불교 부흥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문

정왕후 사후에 그는 유생들에 의해 ‘유승(妖僧)’으로 몰려 끝내 제주에 유배되어 순교하는 비운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 400년이 지나도록 그는 일방적인 자료로만 매도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허응당집>을 비롯한 저술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책은 보우대사가 벌였던 불교 중흥운동과 유림에 대한 대응양식, 사상을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의 진원을 파악하고, 그의 복권에 정당한 논리를 제시했다. 최초의 평전이었던 <순교자 보우선사(한길사, 2000)>의 증보판인 책은 그 동안 진전된 보우대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몇 가지 내용을 보완했다.

첫째는 보우대사의 생년을 1510년으로 정확히 밝힌 것이다. 그동안 대사의 생년이 확실하게 고정되지 않아 정확한 연보를 만들 수 없었다.

둘째는 당대 유학을 대표한 대학자 퇴계 선생의 기록을 통해서 불교와 보우대사에 대한 견해들을 추가한 것이고, 마지막으론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대사의 법문을 정리해 놓았다.

보우대사는 여러 편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 가운



허응당 보우대사 진영. (봉은사·2013)

데 <허응당집>은 보우대사가 금강산에 들어가 수도하던 때부터 입적할 때까지 쓴 시 483편과 병서(并序) 6편의 글을 모은 문집으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그의 저술 중의 하나 <나암잡지>는 제자들에게 남긴 법어와 각종 법회의 소(疏), 발(跋), 중수기(重修記), 권선문(勸善文), 명(銘) 등으로 구성된 저술이다. 책에서는 <허응당집>을 중심으로 보우대사가 남긴

여러 저술을 면밀히 살펴 보우대사의 생애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그의 삶의 조각을 모았다.

보우대사는 유교와 불교의 도가 돌이 아님을 논하며 불교의 진공적멸을 작용의 본체로, 유교의 인륜지도를 본체의 작용으로 보아 유·불을 하나로 회통시켰다. 그는 불가의 입장만을 변론하지 않고, 당시 불교의 잘못된 인식을 먼저 지적하여 단지 공(空)만을 지키는 자는 치선으로, 인륜을 등진 자를 광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부자와 군신 등 모든 인륜관계를 부인하는 중국불교로부터 우리 불교를 경계 지으며 조선시대 모든 배불논리의 원천이 되었던 정도전의 <불씨잡변>의 논리를 무력화시켰다.

올 해로 그의 순교일적 448주년을 맞았다. 비록 20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우대사는 선·교 양종과 승과를 다시 일으키고 승단의 체제를 정비하여 스러져가던 조선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승과를 통해 발굴한 서산, 사명과 같은 스님들은 이후불교의 맥을 이어간 주역이 되었다. 비록 그의 순교로 인해 하루아침에 다시 암울한 시기로 빠져게 되었으나 그의 유교중흥은 후대에 계승되어 유가의 온갖 배척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불교인이 국난 극복의 선두에 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년세에 온몸을 바쳐 불교중흥을 위해 앞장서다 순교한 보우대사의 일생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깨달음	법륜	정토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우리 모두는 부처다	최태평	평세
7	사찰음식이 좋다	일문	담앤북스
8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9	적지 길을 가르키다	이시우	민족사
10	초기불교, 94가지 주제로 풀다	임승택	도피만사



www.unjusa.com
문주사 (02)3672-7181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3×6사군자 (7.4×14.5cm)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한복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래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삭아광연봉연꽃양초 / 약삭1호예술연꽃양초 / 아광 연꽃초

한복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래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